

산란기 중요 사양관리

- 2월 닭의 생리적 발달
- 3월 병아리 입추준비
- 4월 육추기 관리 (0~7일)
- 5월 육성기 관리 (2~4주)
- 6월 육성기 관리 (5~18주)
- 7월 중주이동 전후 사양관리(18~22주)
- 8월 수탉 선발 및 합사 비율 (18~22주)
- 9월 육성기 점등 및 산란기 첫 점등지극 시점
- 10월 산란 5%~산란피크까지 사양관리
- 11월 산란기 중요 사양관리
- 12월 40주 이후 수탉 스파이킹 방법



인 경 섭
한국원종 대표이사

1. 육용종계 산란기 사양관리

1) 목 적

산란기에 높은 산란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중변화, 난중변화, 사료감량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에 있다.

2) 개 요

육용종계의 경우 보통 30주 전후에 체성숙이 완료되며 체조직의 성장과 지방축적을 통하여 주간 증체가 계속된다.

지방축적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산란 후기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자는 사료감량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하

고 닭이 과다 지방축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.

산란기 주간증체는 15~20g만 증체되도록 체중관리를 해야 높은 산란율을 유지할 수 있다

3) 산란피크 이후의 사료감량 시점

사료감량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후반기 좋은 산란율을 유지할 수 있다.

다음은 사료감량시기와 사료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체크사항이다.

- (1) 산란시작부터 체중의 변화
- (2) 1일 난중 및 주간 난중의 변화



- (3) 1일 산란율 및 주간 산란율을 변화
- (4) 계군의 건강상태 및 온도변화
- (5) 사료섭취 시간의 변화
- (6) 사료의 성분과 품질

- 3) 질병
- 4) 기생충 감염
- 5) 권장 이하의 에너지 및 단백질
- 6) 계사의 온도변화

※주의 :사료감량 이후에 산란율이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면 이전 사료급이량을 즉시 급이하고 5~7일 후에 다시 산란변화를 체크한 후 사료 감량을 실시해야 한다.

▣ 난중과 사료감량시 중점사항

난중 측정방법은 두 번째로 수거한 종란 중에서 불합격란을 제외한 종란 300개를 한꺼번에 측정하여 종란 갯수로 나눈 것이 평균난중이다. 다음은 난중체크시 주의사항이다.

- 1) 목표 난중과의 차이에 따라 사료급여량을 조정하여야 하다
- 2) 산란율 10%부터 매일 난중 체크를 실시한다.
- 3) 1일 난중 그래프를 작성하여 난중 경향을 관찰한다.
- 4) 1일 난중이 떨어지면 관리자는 2차 난중 체크를 실시해야 한다.
- 5) 2일 동안 난중이 떨어지면 즉시 사료급여량을 증가시켜야 한다.

▣ 난중 이상의 원인

▶ 난중의 증가

- 1) 사료급여량 과다
- 2) 권장 이상의 에너지 및 단백질

▶ 난중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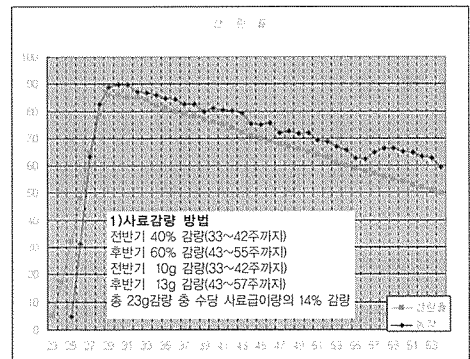
- 1) 과다 사료감량
- 2) 음수의 부족

표1. M농장이 사료감량을 실시한 프로그램

주령	산란율(%)	사료급여량(g)	사료급여량(g)
33주	86.9	169	0
34주	85.8	168	1
35주	84.7	166	2
36주	84.3	165	1
37주	82.7	164	1
38주	82.7	163	1
39주	80	162	1
40주	81.2	161	1
41주	80.6	160	1
42주	80.2	159	1
43주	79.2	158	1
44주	75.5	158	0
45주	75.1	157	1
46주	75.7	156	1
47주	72.1	155	1
48주	72.7	154	1
49주	71.8	153	1
50주	72	152	1
51주	69.4	151	1
52주	68.9	150	1
53주	66.9	149	1
54주	65.7	148	1
55주	62.8	147	1
56주	62.6	146	1
57주	65	145	1
58주	66.4	144	1
59주	66	144	0
60주	도태시까지 144g 급이		

■ M농장의 사료감량(예)

M농장의 경우 산란피크가 90%까지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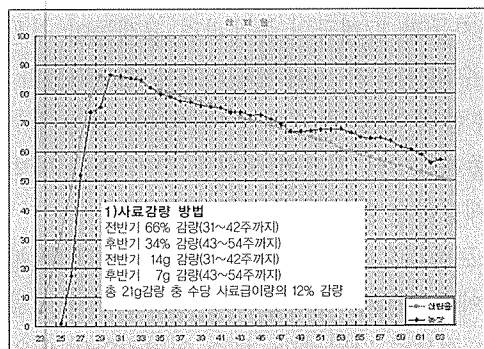
(도표1) M농장의 산란율

하여 사료감량 시점을 2주 지연시켜 33주부터 사료감량을 실시하였다. 전반기(42주까지) 사료감량을 10g 감량하였는데 이는 높은 산란율로 인하여 2주 사료감량시점을 지연시켰으며 전반기에 산란기 총 사료감량의 40%를 감량하였고 후반기(57주까지)에 산란기 총 사료감량의 60%인 13g을 감량하여 총 23g을 감량하였다 이 농장의 경우에는 피크사료를 169g 급이하였고 57주까지 감량하고 그 이후에는 144g으로 고정하여 급이하여 높은 산란지속을 유지한 케이스다.

■ K농장의 사료감량(예)

K농장의 경우 산란피크가 86%까지 상승하여 사료감량시점을 산란피크 일주일 후부터 감량을 실시하였다. 전반기(42주까지) 사료감량을 14g 감량하였는데 이는 피크사료급여량을 175g까지 급이하였기에 전반기에 산란기 총 사료감량의 66%인 14g을 감량하였고 후반기(54주까지)에 산란기 총 사료감량의 34%인 7g을 감량하여 총 21g을 감량하였다

이 농장의 경우에는 피크사료를 175g 급이하였고 54까지 감량하고 그 이후에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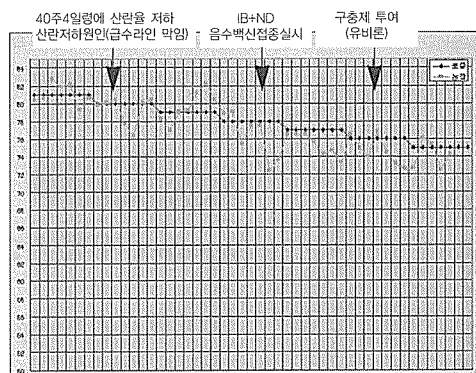


(도표2) K농장의 산란율

154g으로 고정하여 급이하였다

■ B농장의 산란기간 1일 산란편차 그래프

산란기 42주 동안 사고없이 산란율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산란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체크를 실시해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. B농장의 경우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져 농장에서 사양관리 서비스를 요청하여 사양관리를 체크한 결과 니플 급수기가 막혀 닭이 1일 필요한 음수량을 섭취하지 못하여 산란율이 떨어진 케이스인데 그 이후 산란율 변화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백신접종, 구충, 온도변화, 인원교체, 사료교체 등의 변화가 생기면 1일 산란편차가 평균 5일정도 발생한 후 정상적인 산란그래프를 유지하였다



(도표3) B농장 1일 산란편차 그래프

2. 결 론

“왜 그런가” “왜 그렇지 않은가”와 같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종계 사양관리를 한다면 개인발전 및 농장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. **양계**

